

[보도자료] 쿠팡 대만 수출 중소기업, 1년 만에 1만2000곳 돌파 “한국 경제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도약”

2023. 10. 11.





지난 9월말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만행 화물 항공기에 대만 고객들이 쿠팡을 통해 주문한 K-중소기업 제품들이 실리고 있다. 쿠팡은 대만 진출 1년만에 쿠팡을 통해 대만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1만 2000여곳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K뷰티·K푸드·K생활용품 수출로 활약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쿠팡의 '원스톱' 로켓수출로 해외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

- 국내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쿠팡으로 해외 진출한 셈
- K푸드·K뷰티·K생활용품 카테고리 확대로 수출 물량 증가 추세
- 중소기업 부담 큰 '각개전투' 수출 → '원스톱' 쿠팡 수출로 성장세 폭발

2023. 10. 11. 서울 - 쿠팡이 대만에 진출한지 1년 만에 현지에서 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들이 1만2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포화상태에 놓인 국내시장,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삼중고'를 뚫고 대만에 진출한 쿠팡의 로켓에 올라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은 중소기업들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대만에 로켓직구·로켓배송을 런칭 후 올 9월 말 기준 쿠팡을 통해 대만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1만2000곳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수출한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 수는 4만2592곳으로, 쿠팡을 통해 대만에 진출한 중소기업 수가 1만2000곳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약 28% 수준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전체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쿠팡으로 수출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쿠팡은 한국에서 입증한 빠른 로켓배송 모델을 대만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이식, 가격적인 소비자 혜택을 제시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로켓직구는 통상 배송에 3주가 소요되는 타 직구업체와 달리 690 대만달러(한화 약 2만8800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익일 대만행 첫 비행편을 통해 빠르게 무료 배송하고, 현지 로켓배송도 195 대만달러(한화 약 8150원) 이상 구매하면 다음날 무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만 판매 카테고리가 1년 만에 뷰티·패션·생활용품·주방용품·가전·유아용품 등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범위가 대대적으로 넓어졌다. 쿠팡 앱은 폭넓은 셀렉션·합리적인 가격·빠른 배송으로 지난 2분기부터 대만 쇼핑앱 다운로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현재 대만에서 팔리는 수백만개 제품 가운데 70%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다. 쿠팡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만 수출 물량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K뷰티·K푸드·K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쿠팡의 '원스톱' 로켓수출로 해외 진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현지 인력 채용이나 법인 설립, 영업에 각각 공을 들여 수출을 성사시켜왔다. 하지만 쿠팡 대만의 경우 쿠팡이 통관부터 재고관리·로켓배송·고객 응대를 모두 전담하면서 기업이 더 이상 수출을 위해 '각개전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성비 '젤네일' 상품을 만드는 경기도 성남 '바르고코스메틱' 황서운 대표는 "많은 비용이 드는 현지 박람회 참여, '관시(·관계)' 기반의 영업 등이 필요 없어졌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올 들어 현재까지 대만 매출이 70배 가량 뛰었고, 현지 인기에 힘입어

올해 6억원대 증반 매출을 예상한다”고 했다. 마스크팩 업체 ‘지피클럽’은 지난해와 비교해 대만 매출이 10배 늘면서 중국 수출 하향세로 대만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쿠팡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평균 연령 30세’ 청년 식품 스타트업 ‘우주창고’는 창업 3년 만인 지난해 쿠팡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고, 가성비 홍삼 제품의 현지 인기에 힘입어 향후 3년 안에 연 매출 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쿠팡의 대만 진출이 청신호를 보이자, 중소기업들은 자체 수출 인력과 생산설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유아 물티슈 업체인 ‘순수코리아’ 양철식 대표는 “최근 쿠팡 대만 매출이 전체 회사 수출 비중의 50%에 도달했다”며 “대만 수출 인력과 신규 생산설비에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콤부차 제조 중소기업 ‘티젠’도 올해 쿠팡 대만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10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병희 티젠 대표는 “2년 전 6개월간 공을 들여 대만 오프라인 편의점에 진출했지만 매년 성장률이 1%에 그쳤다”며 “쿠팡 효과에 힘입어 향후 3년간 인력증대 등 대만 수출에 10억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마스크팩 업체인 ‘방앗간화장품’은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대만 매출이 50%가량 늘었고, 최근 대만 수출전담팀을 포함해 12명을 신규 채용했다. 유아침구업체 ‘데코원’은 과거 대만 현지 오픈마켓에 진출했다가 매출 부진으로 철수했지만 최근 쿠팡으로 재수출을 가동했다.

해외 진출 애로사항이 많은 소비자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단일 유통기업을 통해 단기간에 중소기업들이 대거 해외에 진출한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쿠팡의 대만 진출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의 대만 수출은 해외 진출이 정체된 수많은 소비자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도약하는 모멘텀을 맞이했다”고 했다.

[연관 포스트: 대만도 로켓을 타고, 쿠팡 대만 로켓직구](#)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